

경기도, 김진석 소방위 영면 애도… “현장 안전에 책임 다짐”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 영결식 엄수 유가족·동료 2730여 명 마지막 배웅 추미에 지사 “희생 가슴에 새길 것” 소방관 근무환경·처우 개선 약속 1계급 특진 추서… 서울현충원 안장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이 끝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마지막 길에는 동료와 유가족, 시민들의 깊은 애도가 함께했다.

김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부천 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韓)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장의위원장인 추미에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최용철 소방청장, 김광웅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회의원과 도의원, 동료 소방관 등 2,7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추 지사는 영결사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한 분의 소중한 소방관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사랑하는



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함께하던 동료를 잃은 소방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는 위급한 순간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심장지환자를 살린 공로로 여러 차례 하트세이버를 수상했으며, 지난 1월에는 부천시 원종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4층 주민들을 구조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추 지사는 고인의 발자취를 언급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웃에게 다시 살아

갈 희망을 전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며 “소방관의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라고 추모했다.

이어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이 정작 자신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며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추 지사는 고인의 희생이 추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김진석 소방위의 이름을 가슴속에 천근의 무게로 새기겠다”며 “소방관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고인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김 소방위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고인이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소방관의 이름은 남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새겨질 것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metro

경북 곳곳 물든 황금빛 은행나무 길

경북문화관광공사, 이달 여행 명소 선정 수백 년 세월 품은 은행나무 노거수 12곳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선보이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의 10월 주제로 가을 산책에 어울리는 경북 은행나무 노거수 명소 12곳을 선정했다.

가을바람이 불고 산과 들이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도내 은행나무 노거수는 수백 년의 세월과 역사·설화를 간직한 경관 명소로 소개됐다. 이번 자료에는 경주·구미·영양·상주·김천·영주·영천·안동·청도 등 9곳의 위치와 특징이 담겼다.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78번지 운곡서원 은행나무는 수령 약 370년, 높이 30m, 줄기둘레 6m에 이른다.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36번지 은행나무는 수령 약 400년, 높이 25m의 천연기념물이다.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1번지 서석지에는 수령 약 440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조선 광해군 때 조성된 전통 정원의 연못과 정자 곁에서 약 130평 규모의 그늘을 드리우며 황금빛 가을 풍경을 만든다.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640번지 외 4필



청도군 청도읍 적천사 경내에 자리한 수령 약 840년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어 가을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지에 자리한 ‘환생목’은 수령 470년, 높이 15m다. 열매를 많이 맺어 마을에서 ‘덕목’이라 부른다.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섬계서원 뒤뜰의 은행나무는 수령 약 600년, 높이 28m의 천연기념물이다.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 소수서원에는 수령 약 500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자리한다.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501번지 임고서원 입구에는 정몽주를 추모하는 서원과 어우러진 수령 약 500년, 높이 30m의 은행나무가 있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교육청, 울릉도에 독도교육 거점 조성

24일 옛 울릉초 장흥분교서 착공식 독도의 날 맞아 역사·영토주권 되새겨

경북 울릉도에 전국 학생들이 독도 역사와 자연환경, 영토주권 의미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독도교육원이 들어선다. 경북교육청은 24일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옛 울릉초등학교 장흥분교 부지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착공식 및 독도의 날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6주년을 맞아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한 현장 체험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에 앞서 경북교육청 관계자와 도내 J-ROTC 학생 등 참가자들은 독도를 방문해 역사와 자연환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독도 탐방 기념 영상 상영과 식전 공연, 독도교육원 건립 개요

보고, 착공 선포식, 특별공연 등이 진행된다. 김소영 작가는 대형 붓을 활용한 ‘붓의 춤’ 공연을 통해 ‘경북교육, 독도를 품다’라는 글씨를 완성한다. 울릉도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도 독도의 역사와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교육원은 옛 울릉초 장흥분교 부지 4685㎡에 연면적 4405.3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2028년 9월 준공 계획이다.

교육원이 완공되면 전국 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찾아 역사와 자연환경을 배우고 영토주권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거점으로 활용된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북=김진곤 기자

인천, 세계 직접판매대회로 MICE 위상 강화

21일까지 영종도 인스파이어서 개최 韓 첫 유치… 33개국 600여 명 참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0월 19~21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 개최인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600여 명이 참가해 업계의 미래와 글로벌 트렌드를 논의한다.

첫날인 19일에는 송도·영종도·개항장을 도는 3개 코스의 ‘인천 시티투어’가, 20일 저녁에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항 야경을 배경으로 한 ‘선셋 디너’가 열린다. 인천시와 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인천의 매력과 상상플랫폼의 이색 회의 명소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원활한 투어 및 선셋 디너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더해 인천 마이스알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관광안내부스 및 K-콘텐츠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대회의 풍성함을 더한다. 아울러 글로벌 업계 리더들에게 인천의 우수한 MICE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각인시켜, 향후 관련 행사 유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직접판매업계 리더들에게 글로벌 MICE 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직접 선보이는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향후 관련 업계의 후속 행사들이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북, 스마트 농산물 유통 전국 최다 선정

내년 스마트 APC 공모 6곳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6곳을 선정받아 국비 69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전국 2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으며 여기에 경북은 가장 많은 6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의 APC는 김천농협, 문경 신미네, 경산 자안농협, 영양군, 청도농협, 성주 선남농협 등이다.

이들 APC는 국비 69억원에다 도비

34억, 시군비 34억, 자부담 52억여원을 투입한 총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선별과 로봇 자동화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역 APC의 농산물 품질 균일화와 상품화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PC 스마트화’는 경북도의 농업대 전환의 핵심 과제다. 내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5곳과 이번에 선정된 6곳을 합해 모두 11곳에서 ‘APC 스마트화’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모두 2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BIFC 금융 전문기업 3곳 유치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디스페이스(D-Space)에 금융 전문 기업 3개사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하는 기업은 선박금융 전문 기관 세계로선박금융, 선주책임상호보험(P&I) 전문 기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디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다. 이번 유치를 통해 디스페이스에는 기존 입주 기업 7개사에서 총 10개 기관으로 입주사가 늘어난다. 선박 투자운용 및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해운기업의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디인베스트먼트는 민간 투자자본 유입과 성장기업 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홍보 캐릭터 ‘버리’ 전국 최우수

경남도 홍보캐릭터 ‘버리’가 지난 17일 열린 ‘2026 대한민국 지자체·공공캐릭터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정부·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문가 심사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결정됐다. 버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출품한 캐릭터들과 경쟁해 정부·지자체 부문에서 선정됐다. 버리는 2024년 5월 출시된 뒤 전국 박람회와 축제에 참여해 경남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릭터 저작 재산권을 개방하고 팝업 스토어도 운영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

창원시

SMR 중심 원전산업 육성 박차

창원시는 소형 모듈 원전(SMR)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아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창원시 원자력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지역 원전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SMR의 제조부터 시험·검사까지 전 주기를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대상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광명시

5만 석 복합 돔구장 유치 시동

광명시가 5만 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 의실에서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돔구장 건립사업 공모에 대응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 접근성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유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명(경기)=김예원 기자 ywon@